

2023. 12. 23.(토)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2월 2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행정국 총무과

총무과장	조영창	02-2133-5605
의전팀장	이종우	02-2133-5620
관련 누리집 (메뉴)		

사진없음 사진 있음 쪽수: 4쪽

서울시, 신년 연하장 발송... 책갈피로 책도 읽고, 새해 꿈도 이루세요

- 통·반장 등 시정협조인사와 정관계·외교계 등 각계 주요 인사에 신년 연하장 발송
- 신규 서울시 브랜드가 새겨진 책갈피를 활용하여 참신하고 활용 가능한 연하장 제작
- 오 시장, '동행으로 매력 넘치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갈 희망의 메시지 전달

서울시는 12월 22일(금), 25개 자치구 통·반장을 비롯해 산하기관 및 시정유관단체 관계자, 정관계·외교계 주요 인사 등 시정협조인사 65,549명에게 신년 연하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 발송 대상은 크게 △자치구 통·반장 △시정협조인사(장학재단 기부자, 복지상 수상자, 서울시 홍보대사 등) △법정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 지회 등) △각계 주요인사(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주한대사, 경찰계, 언론계 등) 등이다.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발송되는 신년 연하장은 매년 연말연시에 시정협조인사 등에게 감사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발송되며, 발송대상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인사들('24년 147명)도 포함된다.

- 또한 주한대사와 해외 자매결연도시 시장, 외국인 명예시민 등의 편의를 위해 영어로 번역된 연하장('24년 265명)도 발송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2024년 신년 연하장은 기존처럼 ‘버리는 연하장’이 아닌 책갈피로 ‘사용할 수 있는 연하장’으로 제작하여 ‘매력 특별시’라는 시정 슬로건을 실현하였다.



〈2024년 신년 연하장 디자인〉

- 표지에는 올 한 해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2023 한강 드론 라이트쇼”에서의 신규 도시브랜드 슬로건(“Seoul My Soul”) 발표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용하여, 한강 밤하늘의 아름다움과 신규 브랜드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 연하장 내지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2024년 서울시 시정 방향인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과 ‘더 안전한 서울’을 담았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연하장을 통해,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를 맞아 하늘을 향해 치솟는 용처럼 더 힘차게, 도전적으로 비상하는 희망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와 “새해에도 어려운 곳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천만 시민의 마음을 모아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고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힘껏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책갈피라는 신선하고 활용성 높은 소재를 이용해 기존의 진부한 연하장에서 벗어났다.”라며 “약자를 더욱 세심히 살피는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 방향의 메시지가 많은 시민에게 진심으로 전달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4년 신년 연하장 디자인

서울특별시



2024년 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든 몽워 래출 밋아
하늘을 향래 치웃은 몽쳐업
더 힘차게, 도전적으로 비상하든
희망 가득한 한 래가 되가을 기원합니다.

새래에도 어려운 곳들 더 세심하게 살피고
천만 시민의 마음을 모아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고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힘껏 나아가겠습니다.

甲辰年 새래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SEUL MY SOUL, SEUL MY SOUL, SEUL MY SOUL 2024년 신년 연하장 디자인 디자인